남가주 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2월 셋째주

도입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소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I'm Rejoicing Night and Day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1.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pilgrim way, For the hand of God in all my life I see,
And the reason of my bliss, Yes, the secret all is this: Tha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2. Once my heart was full of sin, Once I had no peace within, Till I heard how Jesus died upon the tree;
Then I fell down at His feet, And there came a peace so sweet,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3. He is with me everywhere, And He knows my every care, I'll as happy as a bird and just as free;
For the Spirit has control, Jesus satisfies my soul, That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4. There's no thirsting for the things Of the world they've taken wings: Long ago I gave them up, and instantly
All my night was turned to day, All my burdens rolled away, Now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Chorus) He abides, He abides, Hallelujah, He abides with me!
I'm rejoicing night and day, As I walk the narrow way, For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본문 요한복음 14:15-18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John 14:15-18

15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o be with you
forever, 17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You know him, for he
dwell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18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

설교

제자들은 연약하고 실패도 많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다가올 사건들이 그들을 크게 흔들 것을 아신 예수님은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들이 결코 혼자가 되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보혜사요 위로자요 상담자로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분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고 친밀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게 됩니다 —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또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통해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 역시 거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두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큰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평안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 전체에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지 않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결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 하십니다.

설교

Despite the disciples' weaknesses, they truly loved Jesus, and that love was meant to result in obedience. Knowing the trials ahead would shake them, Jesus prepared them by promising they would not be left alone. Though He would depart, the Father would send the Holy Spirit — the Spirit of truth — to be their Helper, Comforter, and Counselor. As a divine person of the Trinity, the Spirit would remain with them, strengthening and guiding them through opposition. The unbelieving world would not recognize the Spirit because it lacked spiritual life, but believers would experience God's presence in a new and intimate way. Through the Spirit, they would know their union with Christ — Jesus in the Father, believers in Jesus, and Jesus in them. This relationship went beyond mere agreement with His teachings; it introduced a lasting closeness with God never previously known. Jesus explained that those who truly love Him will obey His commands, and in response, the Father and Son will dwell with them through the Spirit. Those who reject Christ reveal their lack of love by refusing His words. Because the world rejected God, it would also oppose His followers. After Jesus' departure, the Holy Spirit would continue His teaching ministry — reminding the disciples of His words and guiding them in truth. Yet one can only be reminded of truths already learned,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knowing Scripture. Facing hostility would require courage, but Jesus promised a peace unlike the world's — a deep restoration and wholeness that removes fear. Even when believers feel isolated or overwhelmed, they can rest in the assurance that God is with them through His Spirit. Though the world may reject Christ, He accepts His people, lives within them, and will never leave them as orphans.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us, empowers us, forms in us the heart of God, and faithfully guides us into all truth.

나눔질문

1.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즘 내 삶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이 가장 절실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Just as the disciples needed the Holy Spirit, in what area of your life do you most desperately need His comfort and help lately?
2.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인가요?
   Jesus said if we love Him, we will keep His commandments. Which specific Word of God do you want to obey this week out of your love for Him?
3.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ace the world gives and the peace God gives? Let's share our experiences.

마침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코 고아가 아니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압박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today's Word that we are never orphans and that the Holy Spirit dwells in us forever. Whenever we are shaken by the pressures of the world, may the Spirit of truth hold us firm. Let our family prove our love for You not just through words, but through obedience. Make us a channel that overflows with the true peace You give to the world. Help us to live victoriously today as we wait for Your return.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제목

1. 우리 가족이 성령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소서.
   May our family walk intimately with the Holy Spirit every day and enjoy God's presence without feeling isolated in the world.
2.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May our family become a household of faith that obeys the Word as the Holy Spirit teaches and reminds us, rather than relying on our own knowledge or will.
3.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여,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May our home be filled with heavenly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so that we may not be afraid or troubled in the face of any trials.